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7> 낙엽은 뿌리로 돌아가고

단풍철도 지났다. 가을도 없이 겨울이 와버렸다는 말이 참으로 실감날 만큼 여름은 길고 가을은 짧았다. 그 와중에서도 붉은 잎은 바빠 온산을 물들인 후 이제 있는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고 있다. 낙엽귀근(落葉歸根)이라고 했는가? 하지만 어김없이 이듬해 봄에는 다시 새잎이 돋는다. 그 잎이 그 잎은 아니겠지만 범부들은 그 잎이 그 잎이라 여기면서 영원함을 꿈꾼다.

부처님께서는 100년을 사바세계에 머물 인연이었다. 그런데 80세에 열반에 드셨다. 이유는 당신이 누려야 할 20년 복을 후학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 복으로 제자들은 수행하고 불사하면서 2600여년을 살아왔으니 그야말로 무량한 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을 선어록에서는 '세

자 그는 불을 켜고서 아내에게 가선선사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이후 태기가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선노(仙老)라고 지었다. 겨우 첫돌이 지났는데 옛일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세 살이 되던 해, 백운수단(白雲守端)선사가 가선의 환생을 확인하고는 공부경지도 같이 따라오는지 궁금하여 그걸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때 마침 문밖에 수레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다. 백운이 물었다. "문 밖에 무슨 소리인가?"

선노는 수레 미는 사능을 했다. 다시 물었다. "수레 지나간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평지에 한 줄의 도장이 패이지." 그렇게 선답답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6살이 되자마자 아무 병 없이 죽어버렸다. 그가 유서에서 말한 다하지 못한 인연 6년을 이렇게 채웠던 것이다.

해인초신 스님은 80여세를 살았다. 방어사(防禦使) 주공(朱公)집에서 공양왕을 자주 받



문 밖에...

가선 선사 "세상인연 다 못했다" 서신 남기고

태수 핍박 못이겨 입적...곽씨네 아이로 환생

푸어 표현하기도 했다. 받아야 할 업과 누려야 할 복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낭야광조(羅野廣照)선사 문화의 귀족가선(歸宗可宣)과 해인초신(海印超信)의 행적은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라 하겠다.

가선선사가 살고 있던 남강 땅의 태수는 스님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그러다가 마침내 개인적 허물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책하고자 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는 절친하게 지냈던 곽상정거사에게 서신 겸 유서를 남기고 입적해 버렸다.

"나에게는 다하지 못한 세상인연이 6년 더 남았는데, 오늘 이 핍박을 견딜 수 없어 그대의 집안에 의탁하여 다시 태어나고자 하니 잘 보살펴주기 바라오."

그날밤 곽거사 부인의 꿈속에 가선선사가 어렴풋이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손으로 저어하며 소리쳤다.

"여긴 스님께서는 오실 곳이 아닙니다." 거사는 잠꼬대를 하는 아내를 깨워 그 연유를 물으니 꿈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

었다. 어느 날 꿈공이 물었다. "다음 생에는 저희 집안에 태어나시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 미소로 승낙한 후 절에 들어가더니 열반했다. 이내 그 집안에서 딸이 태어났다. 그 이야기를 원조종본(圓照宗本)선사가 듣고서 찾아갔다. 태어난지 한 달된 아이를 안고 나왔는데 선사를 보고서 방긋방긋 웃었다. 하지만 종본은 인정사정 없었다. "해인이! 너는 틀렸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종본선사는 해인스님이 살만큼 살았는지라 더 살아야 할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에 끄달려 다시 태어난 것을 꾸짖은 것이다. 그러나 가선 스님은 남아있는 인연 6년 때문에 다시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갔다. 업(業)과 인(因)의 법칙에서 누군들 한 치라도 벗어날 수 있었는가? 가끔 그 원칙을 어기고 따로 튀어나온 놈이 있을 경우 가져왔던 힘을 내질렀던 것이다.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메뉴 120여개 ... 인터넷 경전의 바다

무비 스님의 인터넷 카페 '엄화실'

경전을 공부하고 싶은데 불교대학이나 절에 갈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막연히 경전만 들여다보고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많고,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고 싶은 욕심은 버리기 어렵고...

경전공부를 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그것도 손쉽게 해결해 주는 곳이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카페에 개설돼 있는 '엄화실'(<http://cafe.daum.net/yumhwasi>)이 그곳이다. 前 조계종 교육원장무비 스님이 개설한 엄화실은 현재 6000명이 넘는 회원이 공부하고 있는 '경전 도량'이다.

▷ 엄화실 불자들

공무원인 우해(거사56·서울)는 일찍이 출근해 엄화실에서 간략하게 경전을 공부한 뒤 업무를 시작한다. 점심을 서둘러 먹고 남은 자투리 시간에 공부하고, 업무가 끝난 뒤에는 다시 엄화실에 들어가 그날 저녁에 공부할 내용을 프린트해서 집으로 가져간다.

사업업을 하는 현산(거사50·부산)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엄화실에 들어가 보고 싶은 경전을 본다. 어떤 때에는 하루 종일 엄화실에서 여러 경전을 읽으며, 자신을 돌아본다. 바빠서 무비 스님의 인터넷 강의 시간에 맞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만 엄화실에 올라온 강의 재생음은 빠짐없이 본다.

묘운행 보살(48·부산)은 무비 스님의 인터넷 강의를 듣다보면 자신의 마음을 들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강의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공감하고 반성하면서 얻어지는 후련함에 강의의 빠뜨릴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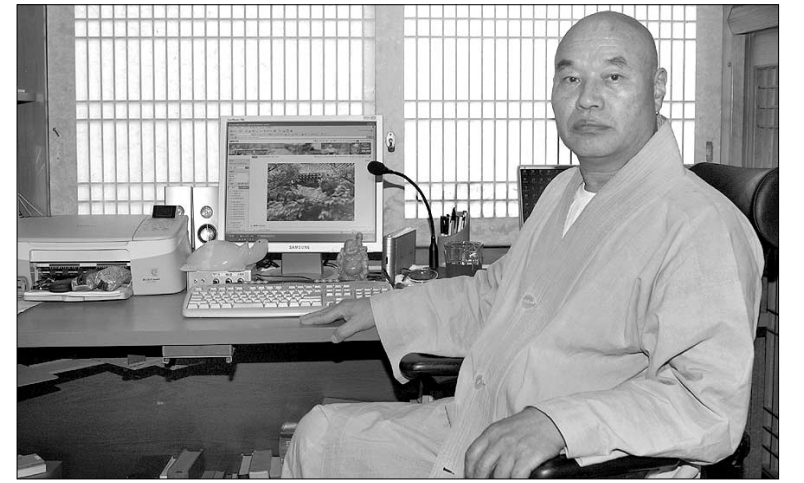
건설업체 대표인 묘진(거사55·수원)은 엄화실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일지경'이라는 잡지 발간을 위해 사무실

한구석에 아예 편직실을 차렸다. 불교에 입문한지 3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경전공부를 하면서 전부를 하겠다는 발심을 하게 됐다.

부산의 초·중·고 불자교사모임인 '청림회' 총무를 맡고 있는 보현실 보살(55·부산)은 엄화실에 올라져 있는 경전강의 내용을 틈틈이 공부하면서 엄화실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보현실 보살은 "이해하기 쉽고 언제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한다.

▷ 강의 최고 인기

엄화실은 경전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페에는 모두 120여개의 메



인터넷 '엄화실'을 통해 각종 경전을 강의하는 무비 스님. 스님은 "법공양이 최상의 공양"이라며 엄화실에 보다 많은 불자들이 찾아오길 기리고 있다.

자료 형태로 올라와 있다. 도반들의 광장 코너에는 엄불과 특경 등 기초교리 외에 한문과 컴퓨터를 공부할 수 있는 메뉴와 회원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마련되어 있다.

회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무비 스님의 인터넷 강의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30분에 40여 분 동안 진행된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 있어 원하는 내용에 따라 공부할 수 있다.

인터넷 강의를 시간에 맞춰 들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날 재방송 내용이 카페에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들을 수 있고, 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용이하다.

자신이 원하는 경전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엄화실만의 특징이다. 워낙 많은 경전내용이 올라와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경전을 공부할 수 있다. 또 공부할 하면서 궁금한 내용을 게시판이나 도반들의 광장 등에 올려놓으면 무비 스님과 카페 회원 스님들은 물론이고 같이 공부하는 회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초심자가 공부하기에 적당하다. 특히, 글자해석에 치우치지 않고 생활법문이 곁들여진 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불자들이 쉽게 공부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강의는 조의 일관성은 불자들에게 정법을 일깨우는 중신수 역할을 하고 있다. <금강경>의 경우 무비 스님이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최근 인터넷 강의를 한 것 등 시대별로 몇 가지 강의를 있는데, 어떤 강의든 정법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도하면 소원성취를 할 수 있다"는 식의 기복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보살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보살행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까지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비 스님의 경전 연구모임인 문수회 총무를 맡고 있는 장인옥 보살(61)은 "강의 내용을 오디오 테이프와 책으로 만들어 전국에 법공양하면서 호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mwah@buddhapia.com

초보~포교사까지 수준별 강의 마련

시·공간 제약없어 직장인들에게 유용

6000여 회원 묻고 답하며 '구부삼매'

누가 구성돼 있을 만큼 많은 경전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놓고 있다. 엄화실에 들어가면 항상 20~30명의 회원들이 공부하고 있을 정도로 열기가 높다.

<화엄경> <승연경> <법화경> <금강경> <천수경> <유마경> <육조단경> 등 각종 경전에 대한 무비 스님의 강의는 물론 범어사 강사인 율화 스님의 대승기신론 등 여러 스님들의 경전강의도 들을 수 있다.

게다가 일타 스님의 <발심장>, 고우 스님의 <선요>, 통공 스님의 <선교결>, 월암 스님의 <간화정료> 등 내로라하는 스님들의 강의도 올라와 있고, <임제록> <신심명> <중도가> 등도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엄화실 방송국 코너에서 <금강경> <대승천> <법화경> 등 그동안 무비 스님이 했던 인터넷 강의 내용이 법문·녹취·

는 모니터상에 대화창이 뜨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무비 스님이 강의를 하면서 답을 한다.

무비 스님은 "엄화실은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 말씀을 공부하는 정법구현의 장으로, 법공양이 최상의 공양이라는 생각에서 엄화실을 개설하게 됐다"며 "이런 동안에 결례에 맞춰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강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이런 점이 좋다

엄화실은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우선 직장인들에게 아주 유용하다. 별도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짚을 내서 공부하기에는 인터넷 도량만한 곳이 없다. 자신의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엄화실의 장점이다. 하나의 경전이라도 초보불자, 포교사, 대학교수 등 수준에 따라 강의했던 자료

아파트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파트 센터
아파트 마스터 김희균
전환주시는 본래는 연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나 말로 단상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학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건강법을 전수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가공 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들이 꾸준히 참가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짱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 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추천수련법, 임, 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마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손요법, 기주입법, 기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기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기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 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회장 박희준)
전화 02)720-5719, 720-5682
전도폰 010-8392-2557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명동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가죽만 한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 시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최고의 선물
방한용 털신
털 깔창

■ 시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카멜이 특수제작)

■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서울 종로구 명동동 143번지 (두산빌딩 맞은편으로 이전)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풍방을 생각하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 산비방 풍수 10평기준 * 연부 10칸 사용 * 2005 12월 기준

구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방열	LPG	보일러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m ³	66.8원/kw	1250원/m ³	1000원/l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원)	588kw	1650kw	124m ³	1569kw	124m ³	182l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15,000원	182,000원
단기차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28평 난방비 (110/142/7평) 시공합니다
(연료비 50~75% 절감)

● 유시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로리쿠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여인아침,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